

## ● 허왕후 도래길을 경남의 특화된 콘텐츠·관광상품으로!

추천 독자 일반인 ●●●○ 공무원 ●●●● 전문가 ●●●○

김태영 선임연구위원(tykim@gni.re.kr)  
이은영 전문연구위원(eylee@gni.re.kr)

- 하나의 매력적인 스토리가 콘텐츠화·관광상품화 되면, 관광객 유치 증대뿐만 아니라 연관산업 동반성장, 고용 창출, 지역브랜드 구축 등 지역 전반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한다.
- 최근 허왕후 도래경로를 재추정한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허왕후라는 인물과 스토리에 대한 일부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일련의 창작 활동으로서 허왕후라는 스토리자원을 특화된 콘텐츠 및 관광상품화 하는 것은 어떨까?
- 고대의 국제결혼, 변하지 않는 사랑 등 기존 콘텐츠의 선별과 메인 테마 발굴을 통한 매력적인 스토리자원 개발과 유적 정비 및 증강현실 콘텐츠 도입, 광역관광상품 개발, 도래길을 연계한 허왕후신행길 축제 개최, 생활형 굿즈 개발 등 허왕후 도래길을 시작으로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삶과 사랑의 스토리텔링을 공간적으로 확장하고 기능적으로 연계한다면 국제적인 콘텐츠·관광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1 허왕후의 금관가야 도래 경로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후는  
김수로왕을 만나기 위해 바다  
를 횡단

#### 붉은색의 돛단배를 타고 나타난 허왕후

허왕후(許皇后)는 허황옥(許黃玉)이라고도 불리며, 시호는 보주태후(普州太后)로 금관가야 시조 김수로왕의 비이자 김해김씨(金海金氏)·김해허씨(金海許氏)의 시조모이다.<sup>1)</sup> 허왕후는 서기 48년(유리왕 25) 음력 7월 27일 배를 타고 금관가야로 건너와 수로왕과 결혼하여 태자 거등공(居登公) 등 아들 10명과 딸 2명을 낳고, 188년 157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sup>2)</sup> 허왕후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 가락국기, 『삼국유사』 탑상(塔像) 금관성파사석탑(金官城婆娑石塔),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상도 김해도호부조 등에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삼국유사』 가락국기는 허왕후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김수로왕과 허왕후와의 첫 만남과 죽음, 장사에 대한 상황들이 서술되어 있다. 허왕후의 부친과 모친의 꿈에 황천(皇天)이 나타나 허왕후를 김수로왕의 배필로 삼게 하라했고, 이들은 허왕후에게 금관가야로 가라 명했다. 이에 허왕후는 김수로왕을 만나기 위해 바다를 건너 붉은색의 돛을 단 배를 타고 금관가야에 도래했으며, 김수로왕에게 자신을 아유타국(阿踰陀國)의 공주 허황옥(許黃玉)이라 소개했다고 전해진다.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 두피디아(<https://www.doopedia.c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표 1〕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기록된 김수로과 허왕후의 첫 만남

건무(建武) 24년 무신 7월 27일에 구간(九干) 등이 조회할 때 아뢰기를 “대왕이 강령하신 이래로 아직 좋은 배필을 얻지 못하셨으니 청컨대 신들의 집에 있는 처녀 중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골라서 궁중에 들여보내어 항려가 되게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짐이 여기에 내려온 것은 하늘의 명령이니 짐에게 짝을 지어 왕후(王后)를 삼게 하는 것도 역시 하늘의 명령일 것이니 경들은 염려 말라”라고 하고, 드디어 유천간(留天干)에게 명하여 경주(輕舟)를 이끌고 준마(駿馬)를 가지고 망산도(望山島)에 가서 서서 기다리게 하고, 신귀간(神鬼干)에게 명하여 승점(乘站)으로 가게 하였다.

갑자기 바다의 서남쪽에서 붉은 색의 돛을 단 배가 붉은 기를 매달고 북쪽을 향해 오고 있었다. 유천간 등은 먼저 망산도 위에서 햇불을 올리니 곧 사람들이 다투어 육지로 내려 뛰어왔다. 신귀간은 이것을 보고 대궐로 달려와서 그것을 아뢰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여 이내 구간(九干) 등을 찾아 보내어 목련(木蓮)으로 만든 키를 바로잡고 계수나무로 만든 노를 저어 그들을 맞이하게 하였다. 그 밖에 시종한 잉신(媵臣) 두 사람의 이름은 신보(申輔)·조광(趙匡)이고, 그들의 아내 두 사람의 이름은 모정(慕貞)·모량(慕良)이라고 했으며, 노비까지 합해서 20여 명이였다. 가지고 온 금수능라(錦繡綾羅)와 의상필단(衣裳疋緞)·금은주옥(金銀珠玉)과 구슬로 된 장신구들은 이루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왕후가 점점 왕이 있는 곳에 가까이 오니 왕은 나아가 그를 맞아서 함께 유궁(帷宮)으로 들어왔다.

：

중략

왕이 왕후와 함께 침전(寢殿)에 있는데 왕후가 조용히 왕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유타국(阿踰陀國)의 공주로 성은 허(許)이고 이름은 황옥(黃玉)이며 나이는 16살입니다. 본국에 있을 때 금년 5월에 부왕과 황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젯밤 꿈에 함께 황천(皇天)을 뵈었는데, 황천은 가락국의 왕 수로(首露)라는 자는 하늘이 내려 보내서 왕위에 오르게 하였으니 곧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것이 이 사람이다. 또 나라를 새로 다스림에 있어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했으니 경들은 공주를 보내서 그 배필을 삼게 하라 하고, 말을 마치자 하늘로 올라갔다. 꿈을 깬 뒤에도 황천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 너는 이 자리에서 곧 부모를 작별하고 그곳을 향해 떠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배를 타고 멀리 증조(蒸棗)를 찾고, 하늘로 가서 반도(蟠桃)를 찾아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용안(龍顏)을 가까이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대답하기를 “나는 나면서부터 자못 성스러워서 공주가 멀리에서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어서 신하들이 왕비를 맞으라는 청을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이제 현숙한 공주가 스스로 왔으니 이 사람에게는 매우 다행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그와 혼인해서 함께 이틀 밤을 지내고 또 하루 낮을 지냈다.

자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허왕후의 출신에 대해 인도 북부 아요디아, 인도 남부 아요디아 꾸뵘, 일본 큐슈, 중국 보주, 태국 아요디아 등 학자별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21년 김해 문화재단은 2천년전 바람과 해류, 지형을 복원하여 ‘과학으로 본 허왕옥 3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허왕후가 인도 북부 아요디아에서 망산도로 건너온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김해시, 가락중친회는 수로왕릉의 쌍어문·태양문의 문양과 인도 아요디아 힌두교 사원의 무늬 간 유사성을 허왕후가 인도 북부 아요디아에서 왔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보고 있다.



자료) 서동철(2008-03-27일자), [서동철 전문기자의 비투로 보는 문화재](61)김해 김수로왕릉의 쌍어문(雙魚文), 서울신문; 국제신문(2007-03-22일자), 이영식교수의 이야기 가야사 여행 <9> 왕릉의 수수께끼 ②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기록된 허왕후의 도래 당시 지리적 정보는 망산도(望山島), 가락국 치소의 승점(乘帖), 궁궐 아래로부터 서남쪽으로 60보쯤 되는 곳에 설치된 만전(幔殿), 바다의 서남쪽 일원 기출변(旗出邊), 별포진(別浦津), 주포촌(主浦村), 능현(綾峴) 등이다.<sup>3)</sup>

(표 2)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기록된 허왕후 도래 당시 지리적 정보

望山島京南島嶼也。 乘帖輦下國也。 闕下西南六十步許地山邊 設幔殿。 忽自海之西南隅掛緋帆張茜旗 而指乎北。 茜旗行入海涯曰旗出邊。 王后於山外別浦津頭維舟登陸。 初來下纜渡頭村曰主浦村。 憇於高嶠解所著綾袴 爲贄遺于山靈也。 解綾袴高岡曰綾峴。	망산도(望山島)는 가락국 경내의 남쪽에 있는 섬이다. 승점(乘帖)은 가락국 치소의 영역이다. 가락국 궁궐 아래로부터 서남쪽으로 60보쯤 되는 곳의 산 주변에 만전 <sup>4)</sup> 을 쳐서 임시 궁전을 설치하고 기다렸다. 바다의 서남쪽에서 붉은 색의 돛을 단 배가 붉은 기를 매달고 북쪽을 향해 오고 있었다. 붉은 기를 매달고 들어온 바닷가를 기출변(旗出邊)이라 한다. 허왕후는 산 밖의 별포진(別浦津) 뱃머리에 매를 매고 물에 올랐다. 처음 와 배를 매고 물에 내린 마을을 주포촌(主浦村)이라 한다. 높은 언덕에서 쉬면서 입고 있던 비단바지를 벗어 폐백으로 삼아 산신령(山神靈)에게 바쳤다. 비단 바지를 벗은 산마루를 능현(綾峴)이라 한다.
--	---

자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이정룡(2018), 허왕후의 가락국 도래 행차와 행로 파악 -지명 중심으로-, 지명학 vol29, 통권 29호, p213-271; 박재섭·도명스님·송진옥(2021), 허왕후 결혼 길 관광 자원화 방안 연구

박재섭·도명스님·송진옥(2021)은 허왕후 결혼길 관광 자원화 방안 연구를 통해 허왕후의 도래경로를 구체화했다. 이들은 허왕후가 기출변→망산도→유주지→승점→별포진→능현→주포→만전→종궐을 거쳐 본궐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표 3) 허왕후의 구체적 도래경로 추정

허왕후는 기출변으로 들어와 망산도에서 관측됐고, 서북쪽의 유주지에 배를 정박했다가 구간(九干)이 맞이하자 내리지 않겠다고 했다. 이후 수로왕이 만전에서 기다리겠다는 소식을 듣고 유주지에서 음력 7월 27일 배에서 하루를 보냈다.  
음력 7월 28일 별포나루 입구 산자락에 배를 정박하고, 능현에 올라 명월산 산신령께 폐백한 후 수로왕을 만나 만전에서 음력 7월 28일~29일 이들을 지내고 오전에 출발하여 본궐로 들어갔다.

자료) 박재섭·도명스님·송진옥(2021), 허왕후 결혼 길 관광 자원화 방안 연구



자료) 박재섭·도명스님·송진옥(2021), 허왕후 결혼 길 관광 자원화 방안 연구를 토대로 연구자 작성

3) 이정룡(2018), 허왕후의 가락국 도래 행차와 행로 파악 -지명 중심으로-, 지명학 vol29, 통권 29호, p213-271

4) 임시로 장막을 쳐서 만든 임금의 앉는 자리(네이버 한자사전)

## 2 러브스토리 연계 콘텐츠 창출 사례

조선시대 신분 차이를 극복한  
남원의 성춘향과 이몽룡,  
인도의 샤 자한과 뭉타즈 마할  
의 영원한 러브스토리

### 조선시대 신분 차이를 극복한 러브스토리; 남원의 성춘향과 이몽룡

판소리 「춘향가」와 고전소설 「춘향전」은 남원부사의 아들 이몽룡과 퇴기 월매의 딸 춘향의 신분을 초월한 러브스토리로 해학적·풍자적 관점에서 조선 후기 평민의식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sup>5)</sup>

춘향의 실존 여부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지만, 남원시는 성춘향과 이몽룡 스토리를 활용하여 춘향테마파크 조성('04), 광한루원 전통문화체험지구 조성('22),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22~'23) 등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춘향만리('18), 열녀춘향수절가('21), 가인춘향('22) 등의 공연을 제작하여 광한루원, 완월정, 화인당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남원시립국악단을 연계한 주·야간 상설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00년 영화 춘향뎐, '05년 드라마 쾌걸춘향, '10년 영화 방자전, '12년 오페라 춘향, '22년 창작 발레 춘향 및 창극 춘향 등 민간 중심의 OSMU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남원시는 성춘향과 이몽룡을 춘향남원 사랑의 1번지(브랜드슬로건), 춘향애인(농산물브랜드) 등 도시 브랜드 구축에 활용하고 있으며, 남원예춘, 국악의 성지, 함파우 소리체험관 등 한옥, 국악 테마의 연계 콘텐츠 육성을 통해 지역의 특화된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다.

<그림 4> 남원시 브랜드슬로건



<그림 5> 남원시 캐릭터



자료) 남원시 홈페이지(<https://www.namwon.go.kr/index.do?contentsSid=5923>)

### 인도의 영원한 러브스토리; 샤 자한과 뭉타즈 마할

샤 자한은 인도 무굴 제국의 제5대 황제로 AD.1612년 5월 10일에 왕자의 신분으로 뭉타즈 마할과 결혼했다. AD.1628년 샤 자한이 황제로 즉위하게 되면서 뭉타즈 마할은 왕비로 즉위했고, 정치·행정,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샤 자한을 내조하면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냈다. 그러나 AD.1631년 뭉타즈 마할이 13번째 아이를 출산한 후 열병으로 사망했고, 샤 자한은 슬픔에 잠겨 1년간 칩거하였으며, 2년간 색이 있는 옷차림, 장신구, 음악 감상 등을 전혀 하지 않았을 정도로 뭉타즈 마할을 그리워한 것으로 전해진다.<sup>6)</sup> 샤 자한은 아내 뭉타즈 마할이 부활하는 날까지 안식할 수 있도록 무굴 제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수천여명의 건축 기술자와 2만

5)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6) 타지마할 홈페이지(<https://www.tajmahal.gov.in/>); 문화재사랑(2016-02-02일자), 사후영생 피라미드 VS 영원한 사랑 타지마할

명 이상의 노동자를 동원하여 22년에 걸친 공사를 추진했고, 1648년 타지마할을 완공했다. 샤 자한은 타지마할 건립을 위해 국고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이를 이유로 AD.1657년 세 번째 아들 아우랑제브에게 왕위를 박탈당했다. 이후 샤 자한은 죄수가 되어 아그라 요새의 팔각 탑에서 아내 몸타즈 마할의 묘인 타지마할을 바라보며 여생을 보내다가 AD.1666년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sup>7)</sup>

<그림 6> 샤 자한



<그림 7> 몸타즈 마할



자료) 타지마할 홈페이지(<https://www.tajmahal.gov.in/>)

샤 자한과 몸타즈 마할의 스토리를 통해 타지마할은 현재 인도의 연인들이 사랑을 맹세하는 장소가 됐고, 호화로운 장식과 독특한 건축기법을 보기 위해 연간 약 7~8백만 명<sup>8)</sup>의 전 세계 관광객이 찾고 있다. 이에 인도 정부는 타지마할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1983년 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 등재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보호체계를 마련했고, 환경오염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타지마할 반경 4km이내에는 전기버스 혹은 도보이동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아그라는 고대 무굴 제국의 수도로 제국의 전성기 당시의 건축, 미술유적 등이 집적해있다. 이에 우타르프라데시주 관광부는 아그라 데이 투어(타지마할, 아그라성, 파테푸르 시크리 연계 투어 프로그램), 타지마할 만월 야간 투어 등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남원의 성춘향과 이몽룡, 인도의 샤 자한과 몸타즈 마할은 인물의 실존여부, 스토리의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기록과 구전에 따라 문화·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허왕후의 도래설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기보다 이들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고, 허왕후 도래길 관련 장소, 수로왕릉, 수로왕비릉, 봉황동 유적 등 관련 자원들을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를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

7)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https://heritage.unesco.or.kr/>); 타지마할 홈페이지 (<https://www.tajmahal.gov.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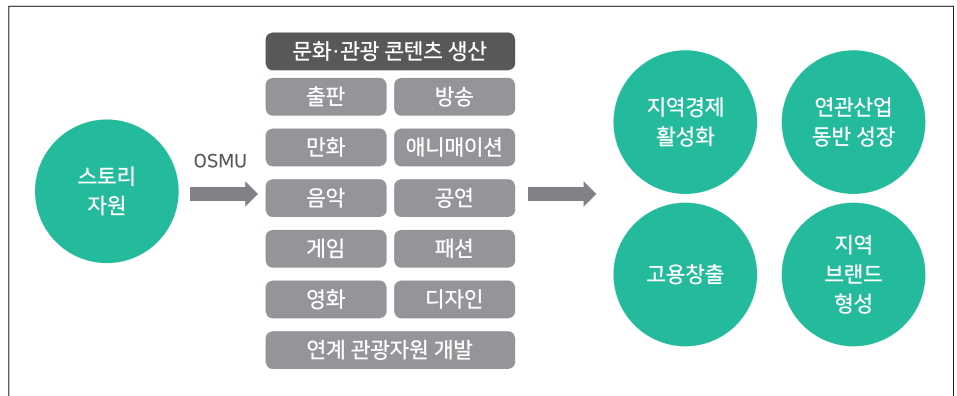
8) 타지마할 홈페이지(<https://www.tajmahal.gov.in/>)

### 3 허왕후 도래길 관광자원화 방안

매력 있는 스토리자원의 육성과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관광자원화 추진 필요

#### 기존 콘텐츠의 선별과 메인 테마 발굴로 매력 있는 스토리자원 육성

콘텐츠산업 수출액 100달러 증가 시, 소비재는 248달러가 증가하고, 제조업, 관광, 스포츠, 문화, 예술, 공연 등으로 연관범위가 확장되는 등 콘텐츠산업은 국가와 지역의 대외적 영향력 및 경쟁력을 구성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sup>9)</sup> 해리포터는 1997년부터 2016년까지 총 8개 시리즈가 출간되었는데, 79개 언어로 번역되어 4억 5,000만부가 판매됐고, 영화로 제작되어 8조 6,24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sup>10)</sup> 또한, 해리포터의 배경이 된 런던 킹스크로스역, 옥스퍼드 크라이스트 처치, 에든 버러성 등은 세계적 관광명소가 됐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해리포터 기념품 등 문화·관광자원화가 활발히 추진됐다. 해리포터는 판타지 소설로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허구이지만, 하나의 매력 있는 스토리가 미치는 파급효과를 증명하는 대표적 성공사례이다. 즉, 하나의 스토리가 성공적인 콘텐츠로 제작되었을 때, 경제 활성화, 연관산업 동반성장, 고용 창출, 지역브랜드 형성 등 지역 전반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는 ‘영제(靈帝) 중평(中平) 6년 기사 3월 1일에 왕후가 죽으니 나이는 157세였다. ··중략·· 왕은 이에 매양 외로운 베개를 의지하여 몹시 슬퍼하다가 10년을 지내고 헌제(獻帝) 입안(立安) 4년 기묘 3월 23일(199년)에 죽으니, 나이는 158세였다.’<sup>11)</sup>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김수로왕과 허왕후는 허왕후가 16세 때부터 157세까지 140여 년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평생을 함께 했다. 타지마할이 인도 연인들이 사랑을 맹세하는 장소가 되었던 이들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 또한 매력 있는 스토리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허왕후와 김수로왕의 스토리에서는 국제결혼의 개방성, 도전정신, 리더십, 양성평등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는데, 이는 현대적 관점에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 허왕후는 김수로왕을 만나기 위해 인도에서 바다를 건너는 험난한 여정을 거쳐 금관가야로 건너와 국제결혼을 했고, 이(異)문화를 가진 낯선 곳에 정착하여 자신의 인생을 개척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는 허왕후와 김수로왕의 죽음 후 ‘온 나라 사람들은 땅이 꺼진 듯이 슬퍼하고 구지봉(龜旨峰) 동북 언덕에 장사하였다.’, ‘나라 사람들은 부모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는 것이

9) 송진(2022), 콘텐츠, 미래를 열다, 2022 콘텐츠산업포럼 정책포럼 자료집

10)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11)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왕후가 죽은 날보다 더하였다.<sup>12)</sup>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김수로왕과 허왕후가 백성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 훌륭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허왕후는 김해허씨(金海許氏) 시조모로 여성의 성씨를 승계한 양성평등의 사례로 이러한 스토리와 키워드는 사회문화적·교육적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허왕후라는 인물과 스토리에 대한 일부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을 왜곡하고자하는 의도가 아닌 하나의 매력적인 스토리자원을 토대로 지역의 특화된 콘텐츠를 창출하는 일련의 창작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길 제안한다.

2010년 사랑의 제국을 시작으로 2015년 미라클 러브 I, 2017년 미라클 러브II 등 뮤지컬, 2021년 오페라 허왕후, 2016년 가야왕후무 등 무용까지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공연이 제작되었지만, 인지도와 흥행도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과거 허왕후를 테마로 3개의 다큐멘터리가 제작됐고, 2021년 허왕후의 도래경로를 재조명하는 과학으로 본 허왕옥 3일이 방영됐다. 또한, 국립김해박물관은 2018년부터 가야사와 국립김해박물관의 홍보를 위해 웹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는데, 2018년 수로왕이 남긴 진짜 유산!, 2019년 신화가 이어지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스토리가 웹툰으로 제작됐다. 웹툰은 국립김해박물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데,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좀 더 많은 계층이 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해보면, 현재 제작된 기존 콘텐츠들의 경우, 인지도와 활용도가 다소 낮은 편으로 재평가를 통해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콘텐츠들을 선별한 후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김수로왕과 허왕후를 상징하는 메인 테마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상징하는 테마를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신규 콘텐츠들을 개발함으로써 브랜드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표 4) 김수로왕과 허왕후 러브스토리 관련 콘텐츠**

구분	내용
공연	·뮤지컬: 사랑의 제국(2010), 미라클 러브 I (2015년), 미라클 러브 II (2017년) ·오페라: 허왕후(2021) ·무용: 가야왕후무(2016)
다큐멘터리	·애니멘터리 한국설화: 배를 타고 나타난 허왕후(연도미상) ·KBS스페셜: 가야역사다큐멘터리: 김해수로왕비(연도미상), 수로왕비 허왕후(연도미상) ·KNN 특집 다큐멘터리: 과학으로 본 허왕옥 3일(2021)
웹툰	·국립김해박물관 웹툰: 2018년부터 가야사와 국립김해박물관의 홍보를 위해 가야와 국립김해박물관을 주제로 웹툰 공모전 개최 -2018년: 수로왕이 남긴 진짜 유산! -2019년: 신화가 이어지는 곳

자료) 김해관광포털(<https://www.gimhae.go.kr/tour.web>); 국립김해박물관(<https://gimhae.museum.go.kr/>)

###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관광자원화 추진

김해시는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러브스토리, 주요 가야유적들을 연계하여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야유적이 집중된 원도심을 중심으로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2단계), 가야유적 발굴체험교육관, 봉황동

12)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유적 확대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해시 불암동 일원에 인도기념공원, 관동동 일원에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와 가야오픈 스마트테마파크를 조성 중에 있다. 그러나 신규로 조성되고 있는 인도기념공원은 주요 가야유적이 입지한 원도심과 자가용 약 17분(7.3km), 도보 1시간 25분(약 5.6km), 가야오픈스마트테마파크는 자가용 약 30분(13.5km), 도보 약 3시간(11.8km) 거리로 다소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야자원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허왕후 도래길을 기반으로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삶과 사랑, 김수로왕의 국제관, 허왕후의 인도에 대한 향수, 일곱왕자, 종교(불교) 등 두 사람의 일대기를 스토리로 구성하고, 유적을 기반으로 공간에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다. 시설물 설치와 함께 각각의 공간을 스토리로 연계하며 공간별로는 전시, 교육, 체험, 이벤트 등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림 8> 김해시 가야 관련 주요 관광개발 사업 현황



자료) 김해시, 2022년 김해시 주요업무계획

먼저 도래길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주요 유적에 대한 기본적인 정비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상지 조사를 통해 각 장소별 허왕후 도래 스토리 안내판을 설치하고 특히 김수로왕과 허왕후가 이들을 함께 보낸 만전은 테마공원 조성 등도 가능하며 증강현실(AR) 콘텐츠 도입을 통해 장소별 스토리, 관광코스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삶과 사랑에 대해서는 가야왕궁터로 추정되는 봉황동 유적에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동상, 러브스토리 안내판 등도 설치하여 도래길과 원도심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더불어 앞서 얘기했던 스토리처럼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설화가 전해지는 김해뿐만 아니라 창원, 부산, 밀양, 하동 등을 중심으로 광역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공간별 특색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공간간의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다.

(표 5) 허왕후 도래길 관련 주요 자원

구 분	내 용
기출변(旗出邊)	·붉은기를 달고 있는 배가 나타난 바닷가
망산도(望山島)	·유천간이 허왕후를 기다리던 장소
유주지(維舟地)	·현재 유주비각이 있는 곳으로 허왕후가 탄 배가 최초로 정박하여 선원들만 내렸고, 허왕후가 하루를 배 위에서 보낸 곳
승 점 ( 乘 站 )	·신귀간이 허왕후를 기다리던 장소
별포진(別浦津)	·허왕후가 승점에 오르기 전 배를 정박하기 위해 닻줄을 내린 곳
주포촌(主浦村)	·허왕후가 배를 매고 물에 내린 마을
능 현 ( 綾 峴 )	·허왕후가 비단바지를 벗어 산신령께 폐백을 올린 곳
만 전 ( 幔 殿 )	·김수로왕이 허왕후를 맞이하기 위해 종길 서남쪽 60보쯤 아래 만든 임시 장막궁전
종 길 ( 從 闕 )	·유숙할만한 곳이 있고 외해(外海)의 행정관청 및 숙소(宿舍)의 기능을 갖추었던 지방의 관청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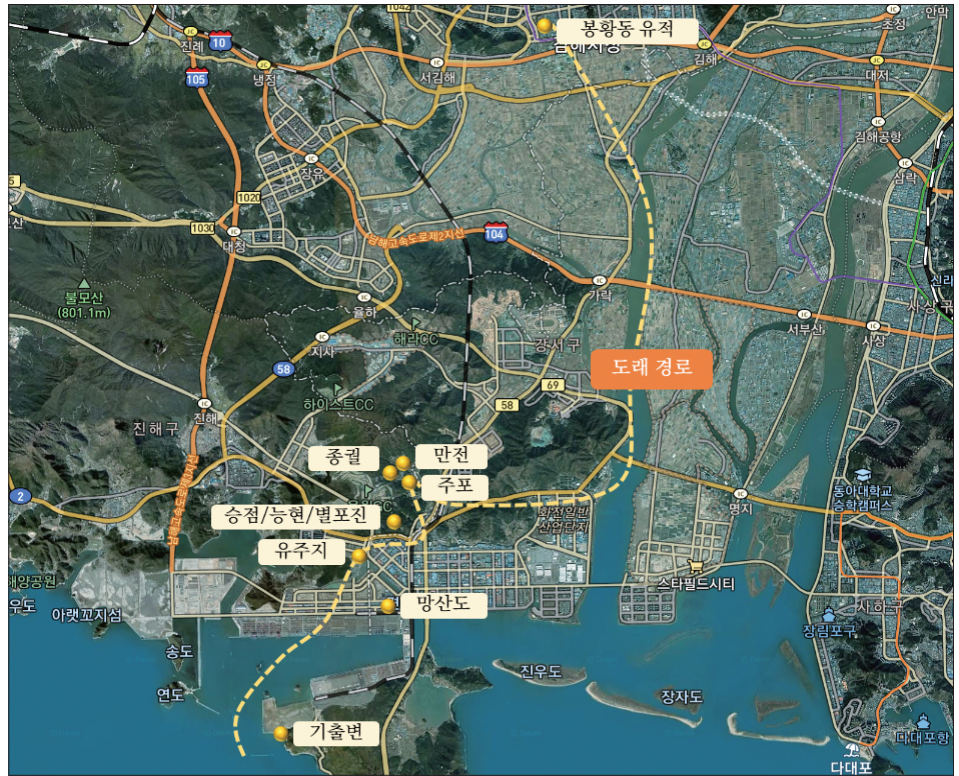
자료) 박재섭·도명스님·송진욱(2021), 허왕후 결혼 길 관광 자원화 방안 연구

<그림 9> 허왕후 관련 장소 현황



김해시는 가야의 역사·문화를 테마로 매년 4월 가야문화축제,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매년 10월 허왕후신행길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가야 문화축제, 허왕후신행길 축제 개최 시 새롭게 추정된 허왕후의 도래길을 축제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허왕후 도래 재현 및 퍼레이드, 허왕후 도래 경로 탐방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서브 축제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가 가능할 것이다.

<그림 10> 허왕후 도래 경로



자료) 박재섭·도명스님·송진옥(2021), 허왕후 결혼 길 관광 자원화 방안 연구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 작성

장기적으로는 허왕후신행길 축제를 확대한 (가칭)허왕후신행길 한·인도 국제 엑스포 양국 순환 개최를 통해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가야문화의 확산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창작오페라 ‘허왕후’ 주제공연, 신행길 퍼레이드, 인문학 강좌(허왕후의 도전정신, 리더십, 양성평등 등), 국제 학술대회, 가야 생활 콘텐츠 체험, 경남 가야홍보관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표 6) 경주시 실크로드 코리아-이란 문화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이란 이스파한에서 실크로드를 통한 신라와 페르시아의 교류, 페르시아 왕자 아비틴과 신라공주 쿠쉬나메의 국제결혼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크로드 코리아-이란 문화축제 개최</li> <li>· 개최기간: 2017년 3월 11~14일</li> <li>· 주요 프로그램: 신라고취대 행렬, 주제공연 쿠쉬나메, 특별전 ‘맛, 한국의 멋과 정’, 할랄 대장금 요리전, 신라복 및 한복 체험, 코리아-이란 교류전, 정통공예 체험 등</li> </ul>
---

자료) 경주시 보도자료(2017-03-06), 2017 실크로드 코리아-이란 문화축제 이란 국영방송 IRIB 전국방송 실시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는 허왕후 일행이 ‘가지고 온 금수능라(錦繡綾羅)와 의상필단(衣裳疋緞)·금은주옥(金銀珠玉)과 구슬로 된 장신구들은 이루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라는 기록이 있다. 허왕후가 가야로 도래하면서 가져온 신문물,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사랑 이야기, 가야의 특성을 연계한 가야토기 인테리어 소품, 옥·구슬 액세서리, 로만글라스 컵 등 다양한 생활굿즈 개발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변하지 않는 사랑, 고대의 국제결혼 등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러브 스토리가 보유한 독창성, 고유성은 문화·관광 콘텐츠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허왕후의 도래에 대한 고증과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들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들을 기반으로 스토리텔링과 문화·관광자원화, OSMU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면 지역 브랜드 구축, 지역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1. 경남연구원(2021), 갖고 싶고 선물하고 싶은 관광기념품을 개발하자!, G-BRIEF
2. 박재섭·도명스님·송진욱(2021), 허왕후 결혼 길 관광 자원화 방안 연구
3. 이정룡(2018), 허왕후의 가락국 도래 행차와 행로 파악 -지명 중심으로-, 지명학 vol29, 통권 29호, p213-271
4. 문화재사랑(2016-02-02일자), 사후영생 피라미드 VS 영원한 사랑 타지마할
5. 서동철(2008-03-27일자), [서동철 전문기자의 비뚤로 보는 문화재](61)김해 김수로왕릉의 쌍어문(雙魚文)
6. 서울신문; 국제신문(2007-03-22일자), 이영식교수의 이야기 가야사 여행 <9> 왕릉의 수수께끼 ②
7. 남원시 홈페이지(<https://www.namwon.go.kr/index.do?contentsSid=5923>)
8. 네이버한자사전(<https://hanja.dict.naver.com/#/main>)
9.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https://www.gaok.or.kr/gaok/main/main.do>)
10. 두피디아(<https://www.doopedia.co.kr/>)
11. 뮤지엄숍(<https://www.museumshop.or.kr/kor/main.do>)
12.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https://heritage.unesco.or.kr/>)
13. 타지마할 홈페이지(<https://www.tajmahal.gov.in/>)
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15. 한국사 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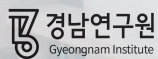
# 경남연구원

Gyeongnam Institute

경남연구원

G-Brief(Gyeongnam-Brief)는 경남의 경제·사회전망 주요현안 진단 및 대응방안 제시, 국내외 선진정책 제도를 소개하는 정책소식지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경남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남연구원  
Gyeongnam Institute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8  
전 화 055-267-7447 FAX 055-266-2079

에디터 신아름